

전국 작가들 광주에 모여 민주·평화·인권 되새기다

문화로 만나는 ‘오월’

〈5〉 오월문학제

동서고금을 떠나 문인들은 사회의 모순이나 불의를 가장 먼저 감지해 작품으로 구현해온 했다. 지난 4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고를 앞두고 작가들은 ‘한 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울골은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에서도 ‘원고지를 떠나 온몸으로 글을 쓰는’ 릴레이 천막농성을 펼치는 등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데 힘을 모았다.

당시 이미승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전국의 작가들은 릴레이 단식과 철야농성으로 현재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작가들은 몸으로 글을 쓸 것입니다”라며 “이에 광주전남작가회의가 명령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정의다! 현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일빌딩245에 마련된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카페. <광주일보 자료>

‘오월 너머의 문학, 세계의 물결로!’

광주전남작가회의, 24~25일 문학제 전일빌딩245·국립 5·18묘지 일원 걸쳐 시화전·오월문학 심포지엄 등

바 있다.

전국의 작가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와 평화와 인권을 다각도로 사유하고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는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기념하는 오월문학제를 연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9층)과 국립 5·18민주묘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오월문학제 주제는 ‘오월 너머의 문학, 세계의 물결로!’.

광주전남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오월문학제에서는 결개시화전을 비롯해 오월문학 심포지엄, 5·18문학상 시상식, 시낭독, ‘한강 ‘소년이 온다’ 문학투어’,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인천작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충북작가회의, 안동작가회의, 대전작가회의, 여수작가회의, 전북작가회의, 부산작가회의, 제주작가회의 등 각 지역 작가회의 회원 등도 참여해 문학을 매개로 오월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

먼저 오후 2시 오월문학 심포지엄은 김영삼 평론가 사회로 진행된다. 고명철 평론가가 기초발제를 하고 김효숙 평론가와 장은영 평론가가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강덕환 시인을 비롯해 김연 시인, 손병현 소설가, 이정현 평론가가 참여한다.

오후 4시부터는 5·18문학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5·18문학상 본상에는 한정현 작가의 소설집 ‘교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오는 24일~25일 전일빌딩245 등에서 전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오월문학제를 연다. 지난해 시화전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교와 교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본상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이 5·18문학의 갱신에 값하고 있으며 그 성취가 연세적으로 후속 세대의 글쓰기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인상은 시 부문 조모현의 ‘꽃잎 속의 총구’, 소설 부문 최현숙의 ‘판 후이를 위하여’, 아동문학 부문 박정희의 ‘긴긴밤 여우고개’가 뽑혔다.

오후 5시부터 오미옥 시인의 사회로 본격 진행되는 오월문학제는 축하공연, 시낭독, 선언문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예정돼 있다.

김미승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 이지담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의 환영사,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사가 펼쳐

진다.

이어 인천작가회의의 축하공연이 끝나면 신기훈 대구경북작가회의 회장, 김순영 충북작가회의 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한다.

시낭독은 문동만(한국작가회의), 최진(안동작가회의), 이미숙(대전작가회의), 전숙경(광주전남작가회의)이 펼쳐며, 여수작가회의는 축하공연을 풀어낸다.

또 다른 시낭독도 예정돼 있다. 장마리(전북작가회의), 김경애(목포작가회의), 나여경(부산작가회의), 김현주(광주전남작가회의)가 시를 낭송하고, 이어 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제주작가회의의 축하공연이 끝나면 회원들이 함

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첫날 행사는 막을 내린다.

둘째 날 25일은 ‘한강 ‘소년이 온다’ 문학투어’, 5·18민주묘지 참배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결개시화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18민주묘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한편 김미승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올해 오월문학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80년 5월의 진실을 알리고 예술로 항쟁했던 작가들의 뜻을 되새길 계기”이라며 “무엇보다 전국에서 작가회의 회원들이 모여 5·18정신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월가족이 풀어놓는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ACC, 10월까지 25차례 진행

해마다 5월이 오면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있다. 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극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에게 5월정신과 광주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도 오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오월가족 이야기와 아울러 80년 5월 항쟁의 주요 공간이었던 옛도청 일원과 전일빌딩245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시간도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은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오월이야기)를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모두 25차례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날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겨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월이야기는 정기 프로그램(14회)를 비롯해 수시 프로그램(8회), 기획 프로그램(3회) 등이 예정돼 있으며 옛 전남도청 및 전일빌딩245, 5·18사적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이며 희망자(초등학교 4학년 이상)는 ACC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또는 현장예매하면 된다. 문의 ACC 교류홍보과 담당자.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오월가족들과 함께하



ACC에서 진행한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장면. <ACC 제공>

오월이야기는 80년 5월을 모티브로 평화와 인권, 가치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 등을 함께 사유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ACC는 향후에도 5·18을 모티브로 시민들과 오월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시작된 오월이야기는 지난해까지 모두 91회 진행돼 총 1709명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할배들의 웃기고도 슬픈 ‘인생 이야기’



남도소리유평터에서 오는 24일 개그 연극 ‘안녕, 할배’가 펼쳐진다. 왼쪽부터 개그맨 김태원, 정승환, 김희경, 송영길. <전남문화재단 제공>

전남문화재단 ‘안녕, 할배’

24일 무안 남도소리유평터

웃음은 기본, 감동은 덤. ‘할배’들의 유쾌한 인생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이 오는 24일 오후 7시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유평터에서 개그 연극 ‘안녕, 할배’를 선보인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개그맨들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하는 무대로,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작품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노인들의 유쾌하

면서도 따뜻한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노년의 우정을 중심으로, 인생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위트 있고 몽클한 메시지를 담았다.

공연에는 KBS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 김태원, 송영길, 정승환, 김희경 등이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세대 간에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며 “관객들이 유쾌한 웃음과 함께 따뜻한 여운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좌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백 아름답게 피우리라’

이미에 개인전, 21일까지 이화갤러리

‘여백이 있는 삶’.

열릿 ‘저녁이 있는 삶’을 떠올리게 한다. 여백이 있다는 것은 심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박자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여백은 여유와도 같은 동의어다.

이미에 작가의 ‘여백 아름답게 피우리라’ 전시가 오는 21일까지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제가 말해주듯 여백은 가능성을 내재한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 다른 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여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찰이다.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에서 한발 짝 물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 여백은 관객들을 초청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작가가 묘사한 그림을 중심으로 관람객은 자신만의 상상을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엄마의 정원(모란)’은 모란의 꽃봉우리 이면에 드리워진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인생을 포괄한다. 아름다운 꽃 너머에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눈보라가 쳤을 사시사철 역경의 순간들이 겹쳐 있다. 엄마의 정원이 아름다운 건, 만개한 꽃보다 그 꽃을 피우기까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꽃은 자연적인 꽃을 넘어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호화된다.

작가는 “작은 그릇은 내 마음속 어머니의 작은 품을 상징한다”며 “그릇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무등아트페스티벌 전시를 비롯해



‘엄마의 정원(모란)’

남도 미술대전 특선(2023),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특선(2024)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 우디가 전하는 따뜻한 감성

6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뮤지션 우디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6월 20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우디-너에게 닿는 노래’ 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는 젊은 세대와의 예술적 소통을 목표로 마련된 GAC기획공연 포커스 시리즈 중 하나다.

2011년 그룹 N-Train으로 데뷔한 우디는 보컬과 랩은 물론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아우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대중 입고 나와’ 등으로 대중과 호흡을 이어왔고,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표곡을 비롯해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say I love you’,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등 우디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이 깃든 곡들을 만날 수 있다. 기타 강우림, 베이스 이



싱어송라이터 우디.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용규, 메인 건반 원혜영, 세션 건반 강진성, 드럼 김성영이 함께해 풍성한 라이브 밴드 무대를 완성한다.

모성일광주예술의전당 홍보팀장은 “우디의 음악은 감성적인 메시지로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나눈 만큼, 남녘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조여름 밤 공연장을 찾아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우디의 노래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